

소들도 '고온 스트레스'...함평 한우 농가의 여름 전쟁

기온 25도 넘기면 호흡수 늘어나 사료 섭취량 감소로 면역력 저하 소화 잘 되는 알곡 늘려 자주 공급 비타민E·셀레늄 등 세포 손상 줄여 물 뿌리고 송풍팬 가동 온도 조절

야외 체감온도가 35도를 훌쩍 넘는 3일 전라남도 함평군 손불면 학산리 한 축사. 뱃집모자를 깊숙이 눌러쓴 박재광(35)씨가 축사 지붕에 연신 물을 뿌리며 분주하게 움직인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소들을 지키기 위한 고군분투다.

11년째 비육우(고기소)와 번식우(암소), 송아지 등 80여마리를 사육 중인 박씨는 "소도 더우면 밥을 안 먹는다.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까지 줄여야 여름을 날 수 있다"며 "지속되는 폭염에 축산농가들이 어느 때보다 길고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한우는 외부 기온이 25도를 넘기면 체내 열을 발산하기 위해 호흡수가 크게 늘어나는 '고온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이로 인해 사료 섭취량이 줄어들어 체지방을 분해해 에너지를 쓰게 되는데 이는 곧 면역력 저하와 생산성 감소로 이어진다.

박씨는 한우의 생육 단계에 따라 사료 급여 방식도 세밀하게 조정하고 있다.

그는 "여름철 비육우에게는 소화가 쉬운 알곡 중심의 혼합사료(농후사료) 비율을 높여 소화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줄여주고 있다. 조사료는 소화가 잘 되고 번



전라남도 함평군 손불면의 한 한우 축사.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소화가 쉬운 사료 공급과 축사 온도 조절을 위한 송풍팬이 가동되고 있다.

식에 도움이 되는 푸른 풀(청초) 위주로 급여 방식을 전환했다"며 "사료는 비교적

선선한 새벽시간과 저녁시간에 주고 같은 양을 주더라도 급여 횟수를 기존 2회에서

3~4회로 나눠 먹는 양을 늘려 체력을 유지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번식우의 경우 번식 효율 저하를 막기 위해 비타민E와 셀레늄(Se) 같은 항산화 물질도 함께 급여한다. 이는 세포 손상을 줄이고 반추위 온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여름철에 특히 취약한 송아지 관리에도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

박씨는 "면역력이 부족한 송아지는 여름철 고온 다습한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면 설사병이나 호흡기 질병에 걸리기 쉬워 쾌적한 축사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축사 바닥 빗집을 수시로 교체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들이 안전하게 여름을 나기 위해서는 생육단계에 따른 급여 방식 조절 외에도 축사 온도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 개방형 구조인 축사는 외부 기온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기 때문이다.

박씨는 "한우 번식암소의 임신율(수태율)은 농가 소득과 직결되기 때문에 쾌적한 사육환경을 만드는 게 최우선시되어야 한다"며 "축사 지붕에 물을 뿌려 온도를 낮추고 송풍팬을 가동해 고온다습한 공기가 배출되도록 해야 한다. 송풍팬은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 지면과 평평하게 설치하는 것보다 45도 각도로 설치해야 효과적으로 환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씨는 마지막으로 "사람도 더우면 입맛을 잃듯, 소들도 결국 환경에 좌우된다"며 "지속되는 폭염에 축산농가들의 여름은 어느 때보다 길고 무겁다"고 말했다.

글·사진=조진용 기자

전남도, 고수온·적조 피해 예방 대책 추진

양식장 선제 예찰·교육 강화

전라남도도와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이 여름철 고수온과 적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부터 피해 복구까지 현장 중심의 재난 대응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는 장마가 짧고 폭염이 빠르게 시작되면서 고수온 발생 시점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아, 철저한 사전 대비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전남도는 지난 4월부터 도내 양식장 3318개소를 전수 점검하고, 미비 사항은 즉시 개선 조치했다. 아울러 입식신고 및 재해보험 가입도 적극 독려해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이뤄지도록 현장 지도를 강화했다.

향후 고수온·적조 특보가 발령되면 전남도는 즉시 종합상황실을 가동하고, 피해 우려 해역에는 현장대응반을 배치해 상시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오지현 기자

전남도, 가축 폭염피해 예방 20억 긴급 투입

닭·오리·돼지·한우 등 축산농가 고온 스트레스완화제 신속 공급

전라남도가 여름철 폭염에 따른 가축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비비 20억 원을 긴급 편성, 축산농가에 고온스트레스완화제를 지원한다.

올해는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폭염이 시작됐고, 7·8월에는 높은 기온과 함께 강한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이에 전남도는 가축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올해 예산안 17억 원의 사업비와 별도로 예비비 20억 원을 추가 확보, 총 37억 원 규모의 고온스트레스완화제를 확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폭염에 취약한 닭, 오리, 돼지 농가를 포함해 한우, 젓소, 꿀벌 등 축산농가다.

각 시·군을 통해 7월 말까지 고온스트레스완화제를 신속하게 공급할 계획이다.

박현식 전남도농축산식품국장은 "기후

변화로 폭염이 더욱 빈번하고 강해지는 만큼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농가에선 철저한 관리와 예방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남도는 여름철 재해 대비 취약농가 사전점검을 했으며, 올해 가축 폭염 피해 예방시설 신규 지원에 10억 원,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100억 원, 고온스트레스완화제 17억 원, 축사 지붕 열차단재 도포 지원 3억 원, 사료효율 개선제 27억 원, 낙농가 환풍기 지원 9억 원 등 총 6개 사업에 166억 원을 지원, 여름철 축산재해 피해 예방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오지현 기자

구례군에 기부하고 세액공제도 받으세요 ♥

구례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금 사용처

- ✓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 ✓ 지역문화·예술·보건 등 증진
- ✓ 주민복지 증진사업 등

기부혜택

혜택 1 세액공제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 공제)

혜택 2 답례품 제공
기부금의 30% 이내
- 구례사랑상품권
- 구례특산품(흑돼지, 한우, 천연벌꿀 등)

기부방법

온라인
은행어플로도 가능해요

고향사랑e음 바로가기

오프라인
전국NH농협 방문

기부한도액

1인당 연간 2,000만원 한도, 법인불가

구례고향사랑기부제란?

구례군이 아닌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이 구례군에 기부하고, 구례군은 이를 모아서 주민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사용하는 제도

기부방법

기부부터 답례품 배송까지 원스톱으로! 자동 세액공제까지!

기부금 납부 →
 답례품 주문하기

문의 구례군 총무과 061-780-2307